

20200927 Sermon English

성경말씀: 마태복음/Mt. 21:23-32

23 Jesus entered the temple courts, and, while he was teaching,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came to him.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they asked. 'And who gave you this authority?'

24 Jesus replied, 'I will also ask you one question. If you answer me, I will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am doing these things.

25 John's baptism-where did it come from? Was it from heaven, or from men?" They discussed it among themselves and said, "If we say, 'From heaven,' he will ask, 'Then why didn't you believe him?'

26 But if we say, 'From men'-we are afraid of the people, for they all hold that John was a prophet."

27 So they answered Jesus, "We don't know." Then he said, "Neither will I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am doing these things.

28 "What do you think? There was a man who had two sons. He went to the first and said, 'Son, go and work today in the vineyard.'

29" 'I will not,' he answered, but later he changed his mind and went.

30"Then the father went to the other son and said the same thing. He answered, 'I will, sir,' but he did not go.

31'Which of the two did what his father wanted?' 'The first,' they answered. Jesus said to them, 'I tell you the truth,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s are entering the kingdom of God ahead of you.

32For John came to you to show you the way of righteousness, and you did not believe him, but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s did. And even after you saw this, you did not repent and believe him.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2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28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설교말씀: 회개한 맏아들 the repented first son

여러분께서 마스크를 쓰고 가만히 계시는 것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설교는 10 분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은 짧지만 오늘 본문말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르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some people that are uncomfortable wearing a mask for too long so today's sermon will be finished in about 10 minutes. Although the time is short, we are going to learn the teaching that we heard in today's text.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하고 묻습니다. 분명 불편한 질문입니다.

As Jesus enters the temple and teaches, the high priests and elders come up and ask.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And who gave you this authority?**" This is an uncomfortable question.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하고 되묻습니다. 물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고 묻습니다.

Then Jesus asked them this: where did John's baptism come from? **“Was it from heaven, or from men?”** Of course, everyone at the time knew that John's baptism came from God. So, they know that Jesus is a man of God. Still, they asks, who gave you this authority?

요한복음 1:46 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처럼 당시의 성서를 잘 안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신앙이나 강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때론 그들은 수많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더 중요한 점을 놓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죽어가는 병자를 고치면 안되었습니다.

In John 1:46, Nathanael says this. **“What good can come from Nazareth?”** There were some false beliefs or strong prejudices held by those who knew the Bible well at the time. Sometimes they made a lot of rules and missed the more important points. For example, to keep the Sabbath day holy, they were not to heal a sick man dying on the Sabbath.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점을 잃어버리고 너무 인위적인 법칙들을 만들어 사람들이 그것에서 벗어나면 죄인으로 취급하고 사회로부터 왕따시키곤 했습니다.

They lost the essential point that God wanted, and they made artificial laws to treat people as sinners when they deviate from it and bully them from society.

최근에 색맹으로 태어난 아이의 흥미 있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색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쓰고나서 자기 주위의 다양한 색을 보면서 얼마나 경이로워 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색맹인 사람에게 아무리 다양한 색의 아름다움을 설명해도 그 색의 이름은 기억할지 몰라도 그런 세상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처럼 그 색을 볼 때에야 비로소 색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I recently watched an interesting video of a child born with color blindness. After the child wears glasses that can see colors and he does not know what to do because he is amazed and happy to see the different colors.

No matter how many different colors described to a person who is color blind from birth, he or she may remember the name of the color, but he or she has no idea what the color is

like. It is only when they physically see the color that they know the beauty of color.

예수님은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으며 그의 나라를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색맹이거나 극히 일부의 색 만을 겨우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중심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 고집 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처럼,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맞다고 예수님 앞에서 고집하는 것입니다.

Jesus came from the beautiful kingdom of God that cannot be imagined in the world, and he knows his kingdom well. However, humans cannot know God's kingdom as if they were color blind.

Nevertheless, humans, like stubborn Pharisees and priests who cannot escape from their self-centeredness, insist in front of Jesus that the God they know is right.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프린스턴의 신학교수인 미요리(Migliore)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Faith is seeking understanding"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저 조금씩 깨우쳐가며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As I said someday, Migliore, Princeton's seminary professor, defined faith this way. "*Faith is seeking understanding*" It means that faith in God is a process of constantly seeking to understand the Word. How humans will fully understand the world of God. It is just a little awakening, knowing and obeying His perfect will.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첫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은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자 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음을 바꿔 포도밭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In today's passage, Jesus does not directly answer this question, but uses a parable.

A man has two sons. He said to his first son. 'Son, go to work in the vineyard today.' Then the son replied, "No." But he later changed his mind and went to the vineyard to work.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첫째와 똑같이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답하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두 아들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당연히 첫째 아들이죠. 아버지의 말씀에 대답은 거역했지만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This time he told his younger son the same thing as the first. The second son replied, 'Yes, I will.' But he did not really go. Jesus asks. Which of the two sons did the Father's will? Of course, it is the first son. He rebelled against his father's words, but he repented and went to work.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말씀 중에 갑자기 세리와 창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를 언급했을까요?

Then, while Jesus is explaining, suddenly tax collectors and prostitutes appear. **“For John came to you to show you the way of righteousness, and you did not believe him, but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s did. And even after you**

saw this, you did not repent and believe him.” Why did Jesus mention tax collectors and prostitutes?

당시 세리는 정치적인 인물이지만 그중 가장 무시당하는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창녀는 윤리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 찾아와서 권위를 논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당시의 장로는 정치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고 대제사장들은 윤리적으로 권위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세리와 창녀를 언급한 것은 바로 그 대척점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허상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At the time, the tax collectors were political figures, but among them, they were the ones who were looked down on. At the time, prostitutes were the lowest ethical people. But look! Who were the people who came to Jesus to argue about authority? These are the high priests and elders.

The elders of that time were the most politically authoritative people, and the high priests were the ethically correct. Jesus mentioned the tax collectors and prostitutes in this parable to

point out the illusions of the high priests and elders who are at very opposite points.

세리와 창녀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요한의 회개에 먼저 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흠이 없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 were ignored by society at the time because of their sins and were not accepted as normal people, but they first responded to John's repentance and were baptized. However, the high priests and elders were socially flawless and respected by people at the time, but they could not repent before God.

오늘 말씀에서 알아야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첫째 아들로 비유됩니다. 첫째 아들은 모든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고 그 집안의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차남이나 막둥이가 유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러며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곧 가업을 잇는 첫째 아들이 됩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가업을 잇는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The important thing to know in today's passage is that Jesus is comparing the tax collectors and prostitutes as the first son. The first son is a person who has inherited all the inheritance and continues the family business.

In the Bible,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second son or youngest child continues to inherit. So is Isaac, so is Jacob, and so is David. They soon become as the first sons in the family business. No matter where you are, the person who connects the family business will be the firs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처럼 우리의 신앙은 허상을 붙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Dear saints,

If we do not realize the essence of today's Word, our faith can hold onto the illusion and live our faith like the high priests and elders of that time. I deeply ponder today's words, think about what the life of Jesus' disciples really is, and I sincerely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all of us will live such a life of faith.

기도하시겠습니다.